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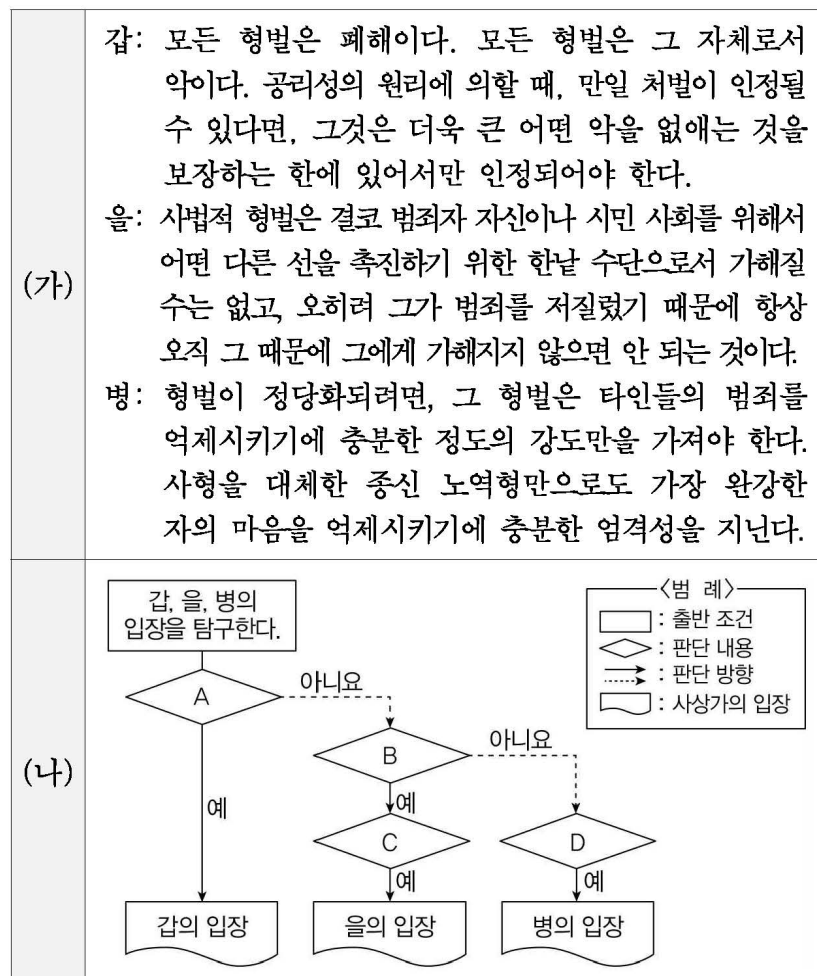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며,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현실 공간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 하듯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표현물까지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갑: 아닙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무 제한적인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을: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비도덕적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 공간과 다른 새로운 도덕규범이 필요한가?
- ② 사이버 공간에서 탈억제 효과는 일탈 행위의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 ③ 사이버 공간에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필요한가?
- ④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현실 공간에서와 다른 심리를 갖게 되는가?
- ⑤ 사이버 공간에서도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한가?

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A: 형벌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가해져야 하는가?
 ㄴ. B: 사형은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하는가?
 ㄷ. C: 범죄자는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ㄹ. D: 형벌은 구경꾼인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고유한 유전 형질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의 고유성을 위협한다. 따라서 고유한 유전 형질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대전제	인간의 고유성을 위협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소전제	㉠
↓		
결론		
고유한 유전 형질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① 인간 복제로 인해 기존의 인간관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 ② 인간 복제는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 ③ 복제 인간은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 조종될 수 있는 존재이다.
- ④ 인간 복제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나 개인의 특성을 상실하게 한다.
- ⑤ 복제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고유성을 형성할 수 있다.

19.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은 거부되어야 한다.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행한 선의의 조치들이 새로운 차별을 낳아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적극적 우대 정책은 과거의 불평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현재의 경쟁에 불공정을 도입하는 셈이다.
(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을 받아 왔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도 약자일 그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도 적극적 우대 정책은 바람직하다.

— < 보 기 > —

- ㄱ.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평등을 중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ㄴ.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ㄷ. 우대 정책은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ㄹ. 과거의 차별에 대한 현재의 보상은 부당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11. 사회 정의에 대한 롤스, 노직, 니부어의 입장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갑은 롤스, 을은 노직, 병은 니부어이다. 롤스는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하에서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가상적 상황인 ‘원초적 입장’을 가정한다.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 원리에 합의하게 된다. 이 때 합의하는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노직은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역할을 최소 국가로 제시한다. 그는 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그는 근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니부어는 집단들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에 의해 확립하는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집단들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와 필요성을 비교·검토하여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

[정답 찾기]

- ② 노직은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기능은 생산된 재화를 재분배하는 복지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권리와 재산을 강도,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이다. 따라서 노직은 사회적 복지를 위해 국가가 자원의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 ①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된다고 본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윤리와 사상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모든 사람의 이익 증진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조건인가?’라는 선지로 이미 출제되었다. 롤스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을 기억해야 한다.
- ③ 니부어는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이 사회 부정의의 원인이라고 본다. 그는 사회의 힘의 불균등이 사회적 불의를 영속화시켜왔다고 주장한다.
- ④ 롤스와 노직은 절차적 정의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절차적 정의의 관점은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분배는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 ⑤ 롤스, 노직, 니부어 모두 사회 정의 실현을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롤스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를 운영해 나갈 원칙에 합의하는 절차가 공정하다면 절차를 통해 나온 결과도 정의롭다고 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한다. 노직은 정의를 각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니부어는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을 정의로 본다.
[몽몽 TIP] 윤리와 사상 기출 문제 함께 보기

- 롤스와 노직은 윤리와 사상에 출제가 된다. 다음은 윤리와 사상에 출제되었던 롤스와 노직의 제시문과 선지들이다.
- ① 롤스
- 무지의 베일 속의 계약 당사자들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계약을 통해 특정 사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채택할 원칙들로서 모든 합의를 규제하게 된다.[2015_9월]
 - 나는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의 사회 계약을 통해 정의의 원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계약이 철저히 준수되리라 생각하고 계약에 합의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의 결과물인 계약은 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2015_수능]
 - 당사자들이 자신의 재능, 가치관, 심리적 경향 등을 알지 못하는 가상 상황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제 되어야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 보편적이고 정당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2016_9월]
 - 특정 지식이 제한된 최초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전체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원칙에 합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를 향상하는 원칙에는 합의한다.[2016_수능]
 - 공통의 정의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는 원칙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숙고된 판단과 일치하는 합당한 정의관을 도출할 수 있다.[2017_9월]
 - 정의는 자신에 관한 특수한 지식이 배제된 상황에서 합의되는 원칙에 근거한다. 그 상황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2017_수능]
 - 사회적 기본 가치를 사이에 대한 선호를 기준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서열적으로 배열된다. 이는 기본적 자유와 경제적·사회적 이득의 교환이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2018_수능]
 - 개인의 자연적 재능은 단지 운일 뿐이며, 소득과 부의 분배는 자연적 재능이 갖는 자의적인 영향이 누적된 결과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자연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한다.[2019_6월]
 - 가상의 상황에서 보편적 합의를 위해서는 동정심이 필요하다.(x)[2015_9월] →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을 지닌다.
 -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 경제적 재화의 차등 분배보다 선결 과제이다.(o)[2015_9월]
 - 더 큰 사회적 효용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x)[2015_9월] → 사회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 기회의 균등을 통해 정의의 요건인 결과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x)[2015_9월] → 결과의 평등은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x)[2015_9월] → 모든 사람은 평등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 사회적 우연성이 계약 상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o)[2015_수능]
 - 적극적인 이타심에 의해 사회 정의의 원칙이 구성된다.(x)[2015_수능] →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합리적으로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 가상 상황은 상호 배려와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이다.(x)[2016_9월] →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합리적으로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 가상 상황의 개인들은 계약에 합의할 의지가 없다.(x)[2016_9월] → 가상 상황의 개인들은 계약에 합의할 의지가 있다.

- 합의 당사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어야 한다.(o)[2016_9월]
 -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가 공정성과 양립할 수 없다.(x)[2016_수능] → 합리적 이익 추구가 공정성은 양립 가능하다.
 - 최초 상황의 개인은 서로의 이익을 공평하게 비교한다.(x)[2016_수능] →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을 지닌다.
 - 재화의 차등 분배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x)[2017_9월] → 기본적 자유는 차등의 원칙에 선행하며 차등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 모든 사람의 이익 증진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조건이다.(o)[2017_9월]
 - 효용의 극대화가 다수가 합의해야 하는 정의관 결정의 원칙이다.(x)[2017_9월] → 효용의 극대화는 공리주의의 입장이며, 롤스는 계약 당사자들 모두가 합의하는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회적 직위를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한다.(x)[2017_수능] →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 약자의 복자를 위한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는 부당하다.(o)[2017_수능]
 - 사회적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o)[2017_수능]
 - 정의로운 사회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o)[2018_수능]
 - 사회적 이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x)[2018_수능] →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적 자유는 제한 될 수 없다.
 -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한다.(o)[2019_6월]
- ② 노직
- 정의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정당한 최초의 취득과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한 분배는 정의롭다.[2017_수능]
 - 개인의 자연적 재능이 운의 문제라는 사실로부터 자연적 재능이 공동의 자산이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는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그 자신의 소유로 간주한다.[2019_6월]
 - 자기 노동의 산물인 모든 것에 대해 소유 권리가 있다.(x)[2017_수능] → 몽몽 모의평가 2회 18번에서 자세히 다룬다.
 - 시장의 원칙에 따른 국가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x)[2019_6월] → 교정의 원리에 따른 국가 개입은 정당하다.
 - 분배의 결과보다 소유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해야 한다.(o)[2019_6월]

12. 환경 윤리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 레건, 테일러의 입장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레건, 병은 테일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레건은 동물 권리론에 입각하여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옹호한다. 그는 일부 동물(1살 이상의 포유류)도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과 자체적 종을 향하여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 활동의 단일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주장한다.

[정답 찾기]

- ㄱ. 아리스토텔레스에게만 해당되는 진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로 이성을 지닌 인간이 이성이 없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본다. 레건은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테일러는 인간 이외의 생명체인 동물, 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
- ㄴ. 테일러에게만 해당되는 진술이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자신의 방식대로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본다. 여기서 모든 생명체는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말한다. 레건은 삶의 주체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인간과 1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류까지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한다.

- ㄹ.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일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체는 어떤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테일러는 각각의 종은 그 종의 선을 결정해 주는 뚜렷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답 피하기]

- ㄴ. 인간은 삶의 주체인 동물을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레건과 테일러 모두에 해당한다.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은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므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몽몽 TIP] 환경담론의 구분

환경담론의 구분은 환경 윤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환경담론은 크게 인간 중심주의와 탈인간 중심주의로 나눌 수 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의 이익과 복지에 관심을 지니고 인간 이외의 존재의 도덕적 권리와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인간 이외의 존재의 도구적(수단적) 가치는 인정한다. 인간 중심주의는 다시 강한 의미의 인간중심주의와 약한 의미의 인간중심주의로 구분된다. 약한 의미의 인간중심주의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로 인간 이외의 자연 존재에 대한 인간의 간접적 의무를 인정한다. 칸트, 페스모어 등이 대표적인 약한(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이다.

탈인간 중심주의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서 인간 이외의 존재의 도덕적 권리 내지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탈인간 중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시키는가라는 범위와 그 근거에 따라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로 분류된다. 동물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싱어와 레건이다. 싱어는 동물복지론의 입장에서, 레건은 동물권리론의 입장에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옹호한다. 생명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슈바이처와 테일러이다. 생태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레오폴드와 롤스톤이다.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들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지만 롤스톤은 개별 생명체들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

[몽몽 TIP] 유형별 전략: 환경 윤리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 유형은 매 번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주로 환경 윤리 문제로 출제된다. 환경 윤리 벤다이어그램 문제를 풀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범위이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범위는 사상가의 공통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 안의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진술은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이다. 따라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 범위에 대한 선지는 그 사상가의 진술만이 아닌 다른 사상가에게도 해당되는 진술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둘째, 그 사상가의 입장의 근거이다. 사상가의 입장의 근거는 그 사상가의 고유한 입장이므로 다른 사상가의 입장의 근거와 공유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꽤 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다.'라는 진술은 같은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라도 싱어에게는 해당되는 진술이지만 레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진술이다. 레건은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 근거를 삶의 주체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상가의 근거를 묻는 진술은 그 사상가에게 해당되는 진술인지만을 따져보면 된다.

수능과 모의평가에 출제되는 대부분의 선지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범위를 묻는 선지로 구성된다. 평가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답 선지는 A, B 사상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술인 데 A 사상가만의 입장으로 설정하거나 A 사상가에게만 해당되는 진술인 데 A, B 사상가의 공통 입장으로 설정하는 선지이다. 환경 윤리 벤다이어그램 문제를 풀 때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는 반드시 다른 사상가에게도 해당되는 진술인지 살펴보아야 한다.